

보도시점

2026. 4. 13.(월) 06:00  
< 4.13.(월) 석간 >

배포

2026. 4. 10.(금)

## K-유통 산업, 이제는 해외로 나간다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기업 13개사 최종 선정완료 -
- 역직구 활성화,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민-관 합동 전략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4.13(월)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2월부터 사업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종합유통부터 뷰티, 식품, 패션, 굿즈 등 K-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망 플랫폼 8개사와 온라인 역직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 (오프라인) 올리브영, 이마트, 무신사, 메디쿼터스, 신세계백화점, 아트박스, 롯데홈쇼핑, 청담글로벌 (역직구) 컬리, 생활공작소, 딜리버드코리아, 유나이티드보더스, K타운포유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유통플랫폼 간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시장별 진출 방향과 실행계획이 논의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선정 기업들은 기업별 강점분야, 해외시장별 소비환경, 유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해외 진출시장과 시장별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정부는 코트트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와 마케팅, 시장조사, 물류·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분야에서는 역직구 활성화 생태계 조성, 오프라인에서는 해외진출 유통플랫폼의 K-소비재 수출 거점화를 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금은 K-소비재 수요 확대에 맞춰 유통플랫폼이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통플랫폼을 새로운 수출 채널로 육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오세형 (044-203-4389)



**1. 추진배경**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26~'28, 471억/년)」 참여기업 선정완료(3.16)
- 선정기업과 ①협력체계 구축, 국내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② 전략공유 및 ③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전략회의 및 협약식 개최

**<선정기업 명단>**

구분	기업명
오프라인(8)	· 올리브영, 이마트, 무신사, 메디쿼터스, 신세계백화점, 롯데홈쇼핑, 아트박스, 청담글로벌
역직구(5)	· 컬리, 딜리버드코리아, 유나이티드보더스, K타운포유, 생활공작소

**2. 행사개요**

- (일시/장소): '26.4.13일 10:00~11:30 / KOTRA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장  
KOTRA 사장, 부사장, 기업선정기업 대표(13) 등 20여명

**<세부 행사일정>**

일시	내 용	비고
10:00-10:05 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5-10:15 10'	· 인사말	산업부, KOTRA
10:15-10:20 5'	· 역직구 및 유통플랫폼 해외진출 확대 추진방향	산업부
10:20-10:25 5'	· 사업 세부내용 소개	KOTRA
10:25-11:20 55'	·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11:20-11:30 10'	· 협약 체결식 및 단체 사진촬영	참석자